

1.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과 영광 중의 최고의 축복과 영광은 '휴거'다

2. '생각'을 뺏기지 말아라

본 문 마태복음 22장 37절
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-17절

할렐루야!

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자의 사랑과 평강을 빕니다.

오늘도 성령님께서 감동 감화로 역사하시니,
말씀을 들을 때 뜨거운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.

(* 부흥강사 - 지난 한 주간 간단하게 정리해 주고 인사하고 말씀 시작)

◎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해 주겠습니다.

첫째,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과 영광 중의
최고의 축복과 영광은 <휴거>다.

둘째, <생각>을 뺏기지 말아라. (입니다.)

◎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를 말씀해 줄 텐데요,
올해 <생명의 날>은 <성자 승천일>이었지요?

<성자 승천>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 있었는지 먼저 말씀해 주며
<휴거>에 대해서 깨우쳐 주겠습니다.

<말씀 시작>

- ◆ 지난날 성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.

“앞으로는 <휴거에 대한 말씀>이
주일 말씀으로도, 계시 말씀으로도 잘 안 나갈 것이다.”

- ◆ 성자는 특히 2009년부터
섭리사에 <재림과 휴거에 대한 말씀>을 쏟아 내시며
우리가 휴거되도록 엄청난 인봉의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.

2012년에는 아예 <휴거의 성령집회>를
한국의 각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매주 해 주었고,
단상의 말씀을 통해 <휴거>에 대해 엄청나게 말씀해 주었습니다.

말씀마다 ‘휴거, 휴거’ 하며
숨넘어가듯 재촉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.

그러다 작년 하반기부터 서서히
“앞으로 <휴거 말씀>이 잘 안 나갈 것이다.” 했는데,
정말로 그러했습니다.

물론 꼭꼭 <휴거>에 대해 말씀했지만,
한창 모든 말씀마다 ‘휴거, 휴거’ 했을 때와는 달랐습니다.

(*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1>

- ◆ 전에는 “급하다. 서둘러라. 해가 저물어 간다.
휴거 열차가 떠나가기 직전이다.” 하며
숨넘어가는 소리를 하셨는데, 그 후부터는 조용해졌습니다.
- ◆ 그때는 성자가 이 땅에 계시면서 마지막으로 외치실 때입니다.
성자가 떠나실 때 휴거된 영으로 같이 가자고 하신 말씀입니다.
- ◆ 그래서 3월 16일 <생명의 날>, <성자 승천일>에
휴거된 영들이 성자와 함께 천국으로 떠나면서 혼인 잔치를 하니,
그리도 기쁘고 흥분되는 축제의 행사를 한 것입니다.

월명동 <성자 사랑의 집> 현장에 와 있었던 사람들은
누구보다 잘 알 것입니다.

“<성자 승천일>은 기쁜 날이다.
고로 성자에게 감사와 기쁨과 영광을 돌리자.” 한 대로
성자에게 영광을 돌릴수록 큰 기쁨이 밀려왔습니다.
- ◆ <성자 승천일>은 슬픈 날이 아니라
휴거된 영들이 성자와 함께 천국에 가서 혼인 잔치를 하는 날이니
그리도 기뻐던 것입니다.

그래서 선생도 당일 아침에
“준비됐든, 준비되지 않았든 모두 무대에 올라가서
성자에게 영광 돌려라.” 했던 것입니다. <끝>
- ◆ 정말 감사하게도 <성자의 계시>를 보니,
아직 휴거 100선, 200선이라도

특별히 <성자 승천일> 하루는
성자와 함께 황금성에서 잔치할 수 있도록
모두 초청해 주셨다고 했습니다.

정말 엄청난 날이었습니다.

- ◆ 성자가 재촉하시고 서두르라고 하시는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.

성자는 우리를 오직
<구원의 길, 휴거의 길, 생명의 길>로만 인도하시고
<최고로 좋은 길>로만 인도하십니다.

역시 신부는 신랑의 말을 들어야 만사형통이고,
기쁨과 보람과 만족이 늘 충만합니다.

(* 다시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2>

- ◆ 성자가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는

마치 ‘차를 타고 가는 격’ 이라서
누구든지 하기만 하면 쉽게 휴거를 이루지만,

성자가 떠나시면 ‘걸어가는 격’ 이라서
자기 혼자서 해야 하니 보다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.

성자께서 이 땅에서 우리와 함께하시며 도우실 때

어서 그 말씀을 듣고 재촉하고 서둘러서

성자의 도움을 받아 빨리 <휴거>를 이루어,

성자가 떠나실 때 같이 가자는 깊은 뜻이 있었습니다. <끝>

- ◆ 그때 그렇게 숨넘어가듯 말씀하셨어도

보통으로 들은 자들은 그때 ‘휴거의 잠’을 깨지 못했습니다.

- ◆ 작년부터 “성자가 곧 떠나신다.” 말씀했기에
올해 수료생들까지는
“성자가 떠나시기 전, 마지막으로 휴거 열차에 올라탔다.” 하며
〈휴거에 대한 성자의 긴급한 말씀〉을 모두 들었을 것입니다.

(*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3>

- ◆ 〈휴거 역사〉는 ‘성자의 육이 살아 있을 때’ 까지 진행되지만,
〈성자가 떠나시는 날〉은 ‘지구 역사상 한 번뿐’ 이니,
이때 휴거를 이루었으면
성자가 떠나실 때 같이 떠나는 영광을 맛보았을 것입니다.
- ◆ 성자가 떠나실 때 〈황금성〉으로 같이 못 가고,
이제야 깨닫고 서두르는 자는 늦게라도 ‘휴거의 영’ 이 되는 대로
〈황금성〉에 가게 됩니다. <끝>
- ◆ 성자가 급한 소리를 하실 때는 꼭 정신 차려야 됩니다.
아무 이유도 없는데 그냥은 절대 급한 소리를 하지 않으십니다.
- ◆ 성자께서 급절하게 말씀하시며 재촉하실 때
보통으로 하고, 하찮은 것들을 끊지 못하고,
휴거에 잠을 자듯 하여 휴거되지 못한 자들은
성자가 떠나실 때 같이 못 갔으니,
이제 뒤늦게라도 행하여 ‘자기 영’ 을 완성시켜
완성되는 대로 〈황금성〉에 가서 성자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.

그러나 휴거되려면, 그만큼 ‘자료’가 필요합니다.
자료는 곧 ‘말씀’입니다.

휴거를 완성시키려면 그만큼 <휴거 말씀>이 나와야 하는데
성자가 떠나셨으니 이제는 가끔만 <휴거 말씀>을 하게 됩니다.

◆ 휴거될 자가 아쉽지,

성자는 천국에 가셔도 ‘휴거된 영들’과 함께
<혼인 잔치>를 하셔야 되니 아쉽지 않습니다.

그래서 성자가 떠나시기 전에 그리도 말씀해 주실 때,
그때가 <휴거될 최고의 기회>라는 것을 알고 했어야 합니다.

◆ <최고의 기회의 때>에 못 한 자들은

앞으로 1년, 2년, 3년, 5년 동안 계속해야 됩니다.

늦게 하더라도 포기하지 말고

늦게 하는 만큼 정신 바짝 차리고 하면 됩니다.

사람이 정신을 차리는 대로 뛰든지 빨리하게 됩니다.

◆ 2013년, 2014년이 <휴거>를 이루기에 최고로 좋은 때였습니다.

올해 수료생들 정말 복이 있습니다.

선생도 지금 <휴거 말씀>을 더 해 주고 싶어도

휴거에 있어서 가장 급절한 때가 지났기에 안 해줍니다.

이제는 <전에 해 줬던 휴거 말씀>을 읽고 새기면서

하나하나 행하여 <휴거>를 이뤄야 됩니다.

◆ 그때 급절하게 외칠 때, 깊이 듣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?

신랑이 “보라. 신랑이다. 나와서 맞아라.” 할 때
나와서 맞아야 됩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◆ 성자는 떠나가실 때

휴거된 영들을 1차로 <천국>에 데리고 가셨습니다.

이들은 신부로서 신랑이 떠날 때 같이 간 것입니다.

그러나 그때 성자와 같이 못 간 영들은
앞으로 휴거되는 대로 <천국>에 오게 하십니다.

신랑이 먼저 떠나신 후에
신부가 뒤따라가는 격이 되었습니다.

◆ 어떻게 휴거되는지는 그동안 정말 많이 말씀해 주었습니다.

반드시 <휴거가 진행되는 역사>로 와서
<휴거 말씀>을 듣고 행하며
<성자와 분체>를 알고 믿고
사랑 일체 되어 살아야 휴거된다고 했습니다.

다른 말씀으로는 ‘그 차원의 구원’ 밖에 이루지 못합니다.

이제 그동안 성자께서 그리도 심정 태우며 해 주었던
<이 시대 휴거의 말씀>을 간절히 듣고 행하면 휴거됩니다.

◆ 오늘은 <오늘에 해당되는 말씀>을 해야 됩니다.

고로 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, 오늘은 말씀하지 못합니다.

예전에 다 해 주었습니다.

그때 해 주었던 급절한 말씀으로 <휴거>를 이루기에 충~분합니다.

- ◆ 항상 ‘때’가 있습니다.

고로 항상 ‘때에 해당되는 말씀’을 급히 해야 됩니다.

- ◆ 겨울의 때가 지난 후에 여름이 되었는데

그때 눈 오기를 기다리면 되겠습니까?

겨울의 때가 지났으니, 여름에는 기다려도 눈이 안 옵니다.

눈이 오는 것을 보려면, 다시 겨울이 오기를 기다려야 됩니다.

- ◆ 이와 같이 ‘때’가 돼야 <휴거의 말씀>을 해 주니,
그때 다시 듣고 행해야 됩니다.

어서 휴거되기 원하는 자들은

<그동안 해 주었던 휴거의 말씀>을 읽고,

<그동안 해 주었던 휴거의 성령의 역사>를 다시 보면서

말씀대로 행하여 휴거를 이루기 바랍니다.

성자가 <휴거>에 대해 직접 말씀하실 때

제대로 듣지 않고 행하지 않은 자들은

글을 보고, 녹화해 놓은 것을 보고 행해야 됩니다.

행한 대로 받는 것입니다.

- ◆ 때가 지나서 늦게 온 자들도

<이미 해 준 말씀과 역사>를 보고서 행하도록 가르치기 바랍니다.

- ◆ 그래서 ‘때’ 를 알고 맞은 자가 최고로 행복한 자입니다.
때를 놓치면, 후에는 꼭 후회하게 됩니다.

앞으로는 후에 후회하지 않도록

결심의 강도와 마음의 강도를 높이고

그동안 못 한 것들을 꼭 행하여 얻기 바랍니다!

<전환>

◎ 이제 오늘 성자가 해 주시는 <희망의 말씀>을 해 주겠습니다.

- ◆ 선생이 새벽기도를 하면서 성자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.

“제 어머니의 영이 휴거되게 해 주시기 위해
성자께서 그동안 지구 덩이만큼 정말 애쓰셨습니다.

그 대가로 더욱더 성자를 잘 모시고 살겠습니다.

제 어머니와 제가 둘이 성자를 들어 손가마를 태우고
평생 감사하고 증거하며 사랑하며 살겠습니다.

제 어머니가 휴거되도록
성자는 그에 해당되는 것은 해 주셨습니다.

그래서 어머니가 휴거되신 것입니다.

저는 겨우 아들이자 할 것을 해 줬을 뿐입니다.
또 하늘의 사명을 받았으니, 당연히 해 줄 것을 해 줬을 뿐입니다.

또 성자께서 어머니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.

아버지보다 10년 더 살게 해 주신다고 했는데,
딱 그 말씀대로 해 주셨습니다.

성자께서 어머니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셔서
그동안 어머니의 영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.

어머니가 아파서 육이 행하지 못한 것들이 있는데,
대신 <기도>로서 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
어머니의 영이 ‘휴거의 영’ 이 될 수 있었습니다.

휴거시켜 <황금성의 한 성>을 주셨으니, 정말 감사합니다.

제 어머니를 보면서 사랑하는 섭리인들도
고생돼도 성자를 믿고 신앙을 지킨 보람이 있다고 하며
자신들도 ‘휴거의 희망’ 을 확신하게 되었고,
힘을 얻고 꼭 휴거되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.

정말 엄청난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.
진실로 감사합니다.” (하고 기도했습니다.)

- ◆ 성자는 “네 어머니 사연 이야기 끝도 없다.
내 이야기를 들어 보아라.” 하셨습니다.
- ◆ 내가 늘 말하고 또 말했지만,
<신부로서 휴거된 자들>은
이 지구 세상에서 인간으로 태어난 자들 중에서
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과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다.
- ◆ <이 역사로 와서 신부로 휴거된 영들>은
천국에서도 최고로 좋은 <황금성>에 간다.

그 자리는 영원한 영광의 자리다.

- ◆ 세상의 왕이나 재벌이나 명예자나 권세자가 누리는 영광은
〈휴거되어 황금성에 가는 영광〉에 비하면 1억 분의 1도 안 된다.

이 세상에서 평생 영광을 받아도
〈황금성에서 1분 동안 받는 영광〉만큼도 안 된다.

세상은 세상에 속한 영광일 뿐이다.

(* 화면을 보면서, 계속해서 <성자의 말씀>을 들겠습니다.) <영상4>

- ◆ 신부로서 휴거되어 가는 〈황금성 천국〉은
수백 가지의 실제 보석으로 만들어졌다.

고로 그 값은 ‘지구 100억만 개’를 팔아도 못 만드는 값이다.

육체 30억 개를 가지고도 ‘영 한 명’을 못 만들듯이,
지구 70억 개를 팔아도 ‘황금성 천국의 값’이 안 된다.

- ◆ 이렇게 귀한 <영원한 세계>에 가는 것이
인간으로서는 최고의 영광을 받는 것이다.

그 외에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영광은 없다.

- ◆ 평생 수고해서 <휴거>만 된다면, 그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이다.

(하셨습니다.) <끝>

- ◆ 사람이라면 누가 세상 욕심, 명예 욕심, 돈 욕심이 없겠습니까?

그러나 자기 인생을 바쳐
삼위를 위해 살고, 역사를 위해 살고,
힘들어도 말씀대로 행하며 휴거를 이루며 산 자들은
“행한 대로 정녕코 갚아 주리라.” 하신 말씀처럼
그 영광이 영원히 끝이 없도록 최고로 받게 해 주십니다.

- ◆ 세상에서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‘지구 하나’를 살 수 있습니까?
<황금성 천국>은 ‘지구 70억 개’를 팔아도 못 삽니다.

성자와 분체를 믿고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았더니,
그 세계를 얻게 되었습니다!

- ◆ 고로 이 세상에서 ‘구원자’가 최고로 고난을 많이 받지만,
최고로 행복하고 영예로운 권세자입니다.

그다음 최고로 행복하고 영예로운 권세자가 있으니,
환난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
끝까지 주를 믿고 따르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
그를 통해 성삼위를 사랑하며 신부로서 살면서
휴거를 완성한 자들입니다. (아멘!)

<잠시 쉬었다가>

◎ 성자는 또 말씀하셨습니다.

(* 다시 화면을 보면서 <성자의 말씀>을 들겠습니다.) <영상5>

- ◆ 전능하신 삼위일체는
휴거된 영들에게 ‘천국의 기본 구조’는 다 주신다.

그러나 기본 터전 위에 ‘황금성의 자기 집과 정원’ 을 더 지으려면
자기가 그만큼 행해야 된다.

자기가 행하는 대로 ‘황금성의 자기 집과 정원’ 을
계속해서 더 지어 가게 된다.

이를 정녕코 알아라.

- ◆ 너희 **육의 행위**가 <휴거>를 좌우하고,
너희 **육의 행위**가 <황금성의 너희 집과 정원의 구조>를 좌우한다.

(하고 말씀하셨습니다.) <끝>

- ◆ <이 세상에서 우리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>가
영혼의 운명을 결정짓는 정말 중요한 때입니다.

이때 육으로 인한 유혹이 오고, 환난과 어려움이 있고,
주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 쉽지 않고 힘들어도
<이 귀한 육신>을 가지고서 정신 바짝 차리고
성자와 주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삶입니다.

(* 화면을 보면서 <성자의 말씀>을 들겠습니다.) <영상6>

- ◆ <이 세상>은 ‘천국 가기 위한 삶의 터전’ 으로 창조했다.
- ◆ <이 세상>은 ‘어머니의 태’ 와 같은 역할을 한다.

<어머니의 태>는

생명이 잉태되어 지구 세상에 나와 살기 위해
성장하고 인체를 형성시키는 역할을 한다.

- ◆ <모태>에서 ‘생명’ 을 만들지 못하고 유산되면,
생명은 그대로 죽어서 지구 세상을 구경도 못 해 보고 끝나듯,

<지구라는 태>에서 ‘자기 영’ 을 만들지 못하고
최고의 영광인 ‘휴거’ 를 이루지 못하면,
영이 사망으로 유산되어 ‘죽은 영’ 으로 끝나고 만다.

- ◆ <구원과 휴거>는
‘황금성 천국에 가는 영’ 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 준다. <끝>

- ◆ 이것을 모르고 사는 자들은
<육신>을 가지고 ‘이 세상’ 만 천국같이 누리다가 끝난다.

그 <영>은 영원히 ‘죽은 영’ 이 되어서
영원히 ‘사망’ 에 갇혀 살게 된다.

- ◆ 아는 것이 그리도 크다.

세상만사 모든 것들이 ‘아는 자’ 만 알고 행하여 얻고,
‘모르는 자’ 는 모르고 살다가 끝나지 않느냐.

하나라도 더 배우고 아는 자가

자기 육신의 운명, 영혼의 운명을 좋게 결정짓는다.

- ◆ 모두 <시대 복음>을 전해라. 그리함으로 <생명을 구원>하자.

<생명 구원>은 ‘자신의 휴거’ 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,
‘나 성자와 내 분체의 몸 역할을 하는 자’ 가 된다.

- ◆ 올해는 <선교하는 해>다.

자신만 구원받고 휴거되지 말고, 어서 전도하자.

2015년이 벌써 3개월이나 지났다.

나 성자를 사랑하는 힘으로 전도하자.

기뻐서 하자. 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하자.

- ◆ 올해가 시작되어 3개월 동안 전도한 자는

나 성자 옆에서 나와 사랑하며 나와 함께 먹고 마시는 자다.

아직 전도하지 못한 자는 내 등 뒤에 서 있는 자다.

- ◆ 행하는 자는 ‘행한 것’ 을 가지고

나 성자와 사연을 나누고 대화하며,

대화를 나눈 모든 것이 천국에 기록되어 있다.

고로 그것이 또 사연이 되어 계속 대화가 끊이지 않는다.

- ◆ 3개월 동안 정말 전도하고자 했다면,

누구든지 한 명은 꼭 전도했을 것이다.

- ◆ 모두 ‘자기 공적’ 으로 살아간다.

<천국>도 ‘자기 공적대로 받고 누리는 삶’ 이다.

- ◆ 기도하여 나 성자와 교통하며

나를 먼저 사랑하는 ‘산 올라타기 삶’ 을 살자.

고로 그 힘으로 생명들을 전도하자.

- ◆ 너희 모두에게 ‘나를 먼저 사랑하는 힘’ 과

‘생명들을 이 시대로 이끌어 오는 능력’ 이 충만하기를 축원한다.

<전환>

◎ 지금까지 <첫 번째 주제>인

‘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과 영광 중의
최고의 축복과 영광은 <휴거>다.’ 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.

이제 <두 번째 주제>인

‘생각을 뺏기지 말아라.’ 에 대해서 말씀해 주겠습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<똑같은 시간>에 **시장**에 가고, **등산**을 가고,
해외에 나가는 것을 동시에 하지 못합니다. 맞지요?

이 말을 완전히 깨달아야 다음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.

‘이와 같이 이러하다.’ 하고 말씀하려 합니다.

(* <성자의 말씀>을 들어 보겠습니다.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7>

- ◆ <같은 시간>에 두 가지, 세 가지 일을 못 하니,
꼭 ‘한 가지 일’ 을 골라서 해야 된다.

<하려고 하는 일 중에서 최고로 좋은 것>을 골라서
그것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.

그래야 ‘신앙의 부도’ 가 나지 않고, 승리하고 성공한다.

(하고 성자는 말씀하셨습니다.) <끝>

- ◆ 그 시간에 ‘최우선으로 할 일, 최고로 좋은 일’ 이 무엇인지 제대로 분별하고 알려면, 꼭 <기도>해야 됩니다.

그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분별이 잘 안 되니,
기도하여 성자에게 감동을 받고 느끼게 해 달라고 해야 됩니다.

이것이 <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하는 최고의 지혜>입니다.

- ◆ <같은 시간>에 ‘급하게 할 일’ 이 두세 가지가 있으면 일단 기도하고 분별하여 ‘최고로 할 일’ 을 골라서 먼저 하고, 다른 한두 가지는 희생시켜야 됩니다.

- ◆ 가령, <1년에 딱 한 번 시장에서 각종 물건을 파는 날>인데 같은 날, 같은 시간에 <1년에 딱 한 번뿐인 섭리 행사>가 있다고 합시다.

이런 때는 기도하여 성자에게 물어보고

‘자기 육과 영에게 연관된 일’

‘하나님과 성자와 연관된 일’ 을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.

자기가 꼭 사야 할 물건은

교회에 안 다니는 친구나, 가족이나, 옆의 사람을 시켜서 사 오게 하면 됩니다.

- ◆ 항상 ‘같은 시간’ 을 두고 ‘여러 가지 할 일’ 이 있으면, 꼭 <영적인 일> 먼저 해야 됩니다.

만일 그 일이 <육적인 일>인데

누가 죽었거나, 생명이 위급한 상황이라면

그것은 ‘생명에 관한 일’ 이니 <육적인 일> 먼저 하되,
꼭 성자를 중심으로 해서 해야 됩니다.

- ◆ 항상 어느 때든지 ‘성자의 것, 영적인 것’ 을 우선으로 해야 됩니다.
그래야 육적인 것도, 영적인 것도 양쪽 다 손해가 없습니다.
- ◆ <먼저 할 것을 먼저 하는 자>가 ‘영적인 자’ 입니다.
- ◆ 생활하다 보면, 많은 일들 중에서 ‘**먼저 할 것**’ 이 있습니다.
그것이 ‘**핵적인 일**’ 이니, 그것 먼저 해야 됩니다.
<핵>을 뺏기면 안 됩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사람이 하고 싶어도 ‘힘’ 이 없으면, 의욕이 없어서 못 합니다.
- ◆ 육신의 최고 에너지는 ‘육의 힘’ 입니다.
그 힘은 ‘정신’ 에서 나옵니다.

(*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8>

- ◆ <정신적인 힘의 핵심>은 ‘생각’ 입니다.
- ◆ 사람은 <생각>이 없으면, 약하고 힘이 없습니다.
<생각>이 잘못되어 있으면, 약하고 힘이 없습니다.
- ◆ <생각>에서 힘이 ‘강하게’ 오기도 하고
‘약하게’ 오기도 합니다.

- ◆ <생각>이라는 힘을 다른 데 쓰면 힘이 소모되어
자기 할 일을 제대로 못 합니다.

고로 성자는 “<생각>을 다른 데로 뺏기지 말아라.” 하고
말씀해 주셨습니다. <끝>

- ◆ 잡다한 것이나 육적인 것에 <생각의 힘>을 쓰고 뺏기면,
‘힘’ 이 없고 ‘의욕’ 이 없어서
자기가 최고로 이뤄야 할 <휴거>를 중심하여
<각종 일들>을 그때그때 행하지 못합니다.

고로 ‘그때 행하여 얻을 것’ 을 얻지 못하고,
사탄에게 당하고 끝나게 됩니다.

그러니 큰 손해입니다.

- ◆ <육신의 힘>을 **이성**이나 **각종 육적인 일들**에 소모시키고
힘이 없어서 ‘영적인 일’ 을 못 하면 **그때 얻을 것**을 얻지 못합니다.

- ◆ 이와 같이 <생각의 힘>을
이성, 세상 오락, TV, 스마트폰, 컴퓨터,
자기가 좋아하고 중심하는 것에 소모시키면
그 시간에는 ‘육적’ 으로 <생각의 힘>을 뺏기니
<축복의 기회>를 쥐도 ‘힘’ 이 없어서 행하지 못하여
얻지 못하고 끝나게 됩니다. (잘 알겠지요?)

- ◎ 이 말씀은 <핵심>만 말씀하고 여기서 끝내니,
잊지 말고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◎ 이제 <생각에 대한 근본의 말씀> 하나만 더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.

◆ 성자는 말씀하시기를 “<생각>을 뺏기지 말아라.” 하셨습니다.

◆ “왜요?” 하고 물으니 성자는 말씀하시기를

“나 성자는 항상 <생각>을 통해서

말씀을 주고, 축복을 주고, 깨닫고 결심하게 하는데

<생각>을 빼앗겨 <생각>이 없으면 몰라서 못 받는다.

다른 것에 <생각>을 빼앗겨 넋이 나간 사람을 보아라.

그에게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들리겠느냐.” 하셨습니다.

(* 화면을 보면서, 계속해서 <성자의 말씀>을 듣겠습니다.) <영상9>

◆ <생각>은 ‘몸을 행하게 하는 몸의 주인’ 이다.

◆ 나 성자가 ‘밭에 감춰진 보화’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려고

대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며 부르고 있는데,

<주인인 생각>이 없으니 말해 주지 못하고 그냥 돌아오게 된다. <끝>

◆ 나 성자는 <생각>을 통해 축복도 주고, 예고도 해 주고,

앞날도 이야기해 주고, 휴거의 답도 주고,

사랑도 해 주고, 경고도 해 주는데

<생각>을 빼겨 <생각>이 다른 것에 쏠려 있으면

주인 없는 집 같아서 심정 상해서 그냥 돌아온다.

- ◆ 고로 <생각>을 뺏기지 말아라.

<생각>을 뺏긴 것은 ‘하나의 죽음’ 이니라.

<생각>을 뺏기면, ‘육체덩이만 있는 빈집’ 이니라.

- ◆ 나 성자가 도적같이 너에게 가서
그 순간 <너의 생각>을 작동시켜 줄 것을 주려 하는데,
<너의 생각>을 ‘다른 데’ 뺏긴 상태이니
내가 쥐도 길바닥에 놓고 가는 격이다.

그러면 사탄이 가져가니,

그때는 안 주고 그냥 가지고 돌아간다. (하셨습니다.)

- ◆ 생각을 뺏기지 말아라. - 참으로 귀한 말씀입니다.

- ◆ 고로 기도할 때, 영계에 갈 때, 성자를 만날 때는
<생각>을 집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. 믿습니까?

- ◆ 성자는 말씀하십니다.

“이제부터 <생각>을 다른 데로 뺏기지 말고,

나 성자에게 집중해라.

앞으로 <생각>을 다른 데 안 뺏기고 내게 집중하면

내가 너희 각자에게 주려고 하는 것을 주겠다.

저마다 나 성자와 내 육을 얼마나 귀히 대하고 사랑하는지 보고,

너희 각자에게 주려고 하는 것을 주겠다.

내가 너희에게 자주 가는데,

너희는 이성과 각종 것들에 <생각>을 뺏겨
판생각을 하고 살아간다.

<신부>가 되려면, 신랑 되는 <성자와 분체>를 늘 생각해라.
그래야 <생각>을 다른 것에 안 뺏긴다.” (하셨습니다.)

<잠시 쉬었다가>

◎ 그리고 성자는 ‘뺏기지 말아야 할 것 한 가지’를
더 말씀해 주셨습니다.

(* 화면을 보면서 <성자의 말씀>을 듣겠습니다.) <영상10>

◆ “<시간>을 뺏기지 말아라.

인간은 <시간>에 매여서 행하며 살아가는데,
<시간>이 없으면, 나 성자가 무엇을 쥐도 못 받는다.

고로 <시간>을 TV, 각종 오락, 세상 헛된 것,
이성에 절대 뺏기지 말아라.” 하셨습니다. <끝>

◆ 온종일 <시간>을 아껴 쓰기 바랍니다.

잡다한 것을 하는 데 시간만 안 뺏겨도 <시간>은 충분합니다.

그 좋은 시간을, 한 번 가면 다시는 안 오는 귀한 시간을
<성자>를 위해서 쓰고, <황금 같은 일>을 위해서 쓰고,
<휴거>를 위해서 쓰기 바랍니다.

◆ 이미 휴거된 자들도 <휴거의 차원>을 계속 높여야 됩니다.

<300선 휴거>는 ‘차에 올라탄 격’ 이라고 했지요?
차에 올라탔으면, 그때부터는 달려야 됩니다.

이제 차를 타고 달리면서
400선, 500선, 600선으로 올라가야 됩니다.

그러면 <천국의 집>도 더욱 갖춰지게 되고,
<영>도 더욱 찬란히 빛나게 됩니다.

아직 육신이 살아 있으니 <휴거의 차원>을 높이, 더 높이 올리려면
얼마든지 끝없이 할 수 있습니다.

고로 끊임없이, 꾸준히, 끝까지 하라고 성자는 말씀하셨습니다.

<잠시 쉬었다가>

- ◆ 또 하나 ‘절대 뺏기지 말아야 할 것’ 이 있지요? (뭘까요?)
<사랑>을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.
<사랑의 대상>을 뺏기지 말아야 됩니다.

(* 화면을 보겠습니다.) <영상11>

- ◆ 영원히 사랑할 대상인 ‘성자와 분체’ 를 두고
다른 것에 <사랑>을 뺏기면,
혼자가 되어 육도 혼도 영도 슬피 울게 됩니다.

결국 자기 홀로 자위행위적의 삶을 살면서
혼자 즐기다가 끝나게 되고,
쓸쓸함과 외로움으로 살게 됩니다.

<자기가 사랑할 성자와 분체>를 뺏기니,

<세상>을 쳐다보며

<세상>을 ‘자기 사랑의 대상’ 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.

◆ <사랑하는 대상>을 뺏기고

<자기 할 일의 대상>을 뺏기면, 자기 홀로 남습니다.

◆ 자기를 중심하면 뺏깁니다.

이 말씀을 꼭 명심하기 바랍니다. <끝>

<말씀 마무리>

◎ 오늘은 ‘두 가지’ 를 말씀했습니다.

첫째,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과 영광 중의
최고의 축복과 영광은 <휴거>다.

둘째, <생각>을 뺏기지 말아라.

<시간>을 뺏기지 말아라.

<사랑>을 뺏기지 말아라. (입니다.)

◎ 말씀을 주신 성자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.

성자의 사랑과 평강을 빕니다.

◎ 이 말씀이 ‘성자와 주’ 가 되어 자기를 지키고,

이 말씀을 잊지 않고 삶 속에서 행함으로

말씀의 주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.

◎ 기도하고, 말씀 마치겠습니다.